



# 반도체 산단 나주호 용수공급은 영산강물 대체 공급 등을 통해 농업용수 이용에는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

- 추진과정에서 농업인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나가겠음

2026년 7월 2일자 아시아투데이 <반도체 용수에 ‘나주호 1일 10만t’... “농업용 안정적 확보가 먼저”>, 데일리안 <나주댐 하루 10만t 반도체 용수 배정... 타들어가는 나주평야> 등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

## □ 보도 내용

- 서남권 반도체 용수에 나주호 활용, 농업용 안정적 확보가 우선

## □ 설명 내용

- 정부는 나주호의 농업용수 일부를 산업용수로 전환함에 따라 발생하는 부족한 용수는 영산강에 양수장과 관로를 신규 설치하는 등 나주호 수혜 농경지에 농업용수를 대체 공급하여 농업용수 이용에는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임
- 대체시설 과정에서 저수지 수혜지역 말단부 등의 물 부족도 해소하고, 기존 노후화된 농업기반시설을 현대화하는 등 가뭄 재해대응 능력을 보다 강화해 농업인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임
- 앞으로 농업인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, 농업인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나갈 계획임

담당 부서	기후에너지환경부 수자원정책관실 수자원개발과	책임자	과 장	이상훈 (044-201-7682)
		담당자	사무관	조경일 (044-201-7655)
	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관 농업기반과	책임자	과 장	이재천 (044-201-1851)
		담당자	서기관	김성률 (044-201-1855)

